

OA1) 경남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대기측정망의 대기질 특성 분석

박정호 · 김태형¹⁾

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, ¹⁾창원대학교 토목환경화학융합공학부

1. 서론

경남 도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는 중국, 인접 지자체(광양권/여수공단) 등 월경성에 의한 원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, 도내 최대 배출원인 삼천포 및 하동 발전본부를 포함한 다양한 배출원의 영향도 함께 고려된다.

최근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와 사회적 재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, 특히 경남지역의 미세먼지(PM₁₀) 오염도는 수도권 및 전국 평균에 비해 '10년도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나, 최근 유사한 농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등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행정적 측면에서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등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.

2. 연구방법

경남지역에는 '17년 12월말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시대기 21개소 및 도로변 1개소 그리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교외대기 3개소 등 총 25개의 대기측정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, 또한 '18년도에 5개소 및 '19년도에 6개소 측정소 신설로 '19년도에 경남지역 전 시군지역에 대기측정소가 구축될 예정이다. 본 연구에서는 도시대기측정소의 1시간평균 농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
<Fig. 1>에는 경남지역 중 대기측정소가 설치된 창원, 진주, 하동, 김해, 양산, 거제, 사천, 밀양, 통영 등 9개시군의 PM₁₀ 및 PM_{2.5} 연평균 농도의 추이를 나타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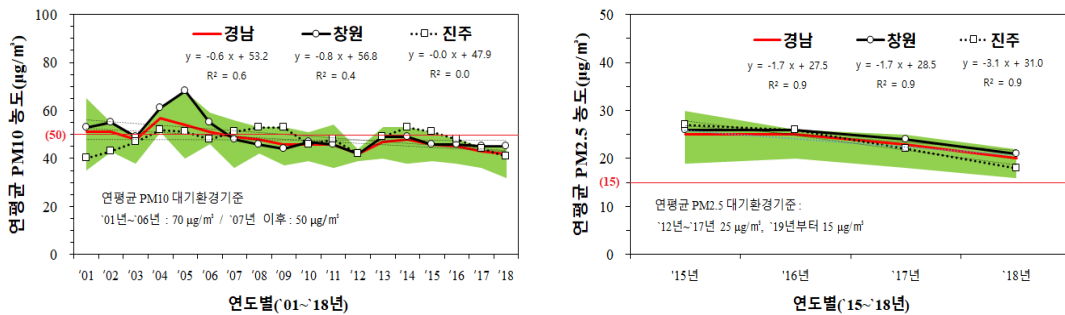


Fig. 1. 경남 지역의 PM₁₀ 및 PM_{2.5} 연평균 농도 추이.

감사의 글

2019년도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, 지원에 감사드립니다.